

삶의 애환 달래준 노래 속 '말'

병오년 '붉은 말의 해' 맞아 관심 광복의 감격 담은 '해방된 역마차' 남녀노소 애창곡 '말 달리지'까지 인생길 함께 걷는 동반자로 묘사

'새벽달 바라보며 백마야 가자 / 청대공 무르익은 고향 찾아서 / 불빛이 반짝이는 저 언덕 넘어' (고운봉 '백마야 가자')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馬)이 등장하는 우리 대중가요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 남녀노소가 즐겨 부르는 크라이닉의 '말 달리지' (이상혁 작사·작곡)가 가장 유명하지만, 말을 소재로 한 노래는 8·15 광복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 박성서 대중음악평론가에 따르면 1941년 나온 고운봉의 '백마야 가자' (고명기 작사·박시춘 작곡) 등 말은 우리 노랫가락에서 삶의 동반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운봉은 이 노래에서 '물방아 돌아가는 고향 찾아서 / 새벽별 반짝이는 저 언덕 넘어 / 해장술 건넌 취해 백마야 가자'라며 삶의 애환을 말에 빗대 노래했다.

박성서 평론가는 "대중가요 속의 말은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삶의 동반자로 묘사됐다"며 "노래의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의 희로애락을 등에 업고 묵묵히 달리는 말이 떠오른다.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이를 함께 나누는 동반자이자 푸념이나 낚두리를 들어주는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서는 명곡환이 부른 '백마야 울지마라' (강영숙 작사·전오승 작곡)에서도 잘 나타난다.

명곡환은 이 곡에서 '백마는 가자 울고 날은 저 문데 / 거칠은 타란 길에 주막은 멀다 / 옥수수 익어가는 가을 벌판에 / 또다시 고향 생각 영키는구나 / 백마야 백마야 울지를 마라'라고 노래했다.

말은 이정희의 '둔기호테' (이정 작사·작곡)나 크라이닉의 '말 달리지' 등에서는 호쾌하게 달려 나가는 멋진 청춘의 상징으로 묘사됐다.

개인용 승용차가 보급되기 전 우리네 '말'의 역할을 했던 마차와 관련된 노래도 많다.

마차를 끄는 빠르고 강인한 체력의 말은 건강·활기·강인함을 상징했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리는 존재로 종종 그려졌다.

박성서 평론가는 "마차와 관련된 노래는 꿈과 희망, 혹은 사랑의 설렘 등을 신도 달리는 내용의 희망찬 노래가 많다"고 소개했다.

광복의 감격이 묘사된 장세정의 1948년작 '해방된 역마차' (조명암 작사·김해송 작곡)가 대표적이다.

장세정은 '올어라 은방울'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이 곡에서 '은마차 금마차에 태극기를 날리며 / 사랑을 싣고 가는 서울 거리나 / 올어라 은방울야 새종로가 여기다 / 인왕산 바라보니 달빛도 곱네'라고 희망을 읊었다.



장현우 작 '적토마'



명곡환 '백마야 울지마라' LP 재킷



장세정 '역마차' LP 재킷

또한 송민도는 '하늘의 황금마차' (반야월 작사·나희광 작곡)에서 '님 찾아가자 가자 황홀한 꿈나라로 / 하늘의 황금 마차'라고 희망차게 노래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명곡환의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유노완 작사·전오승 작곡), 장세정의 '역마차' (조명암 작사·김해송 작곡), 진방남의 '꽃마차' (반야월 작사·이재호 작곡), 박재홍의 '북진마차' (박두환 작사·김성근 작곡) 등에서 마차가 등장했다.

이규희의 '7번 경마' (김문운 작사·김성준 작곡), 박재홍의 '인생 경마' (호심 작사·전오승 작곡) 같은 경마를 소재로 한 노래나 동명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인 조애희의 '말피 신부' (유호 작사)도 있었다.

박성서 평론가는 "이렇듯 노래 속에 투영된 말은 그 어떤 존재보다 짙은 삶의 애수를 머금고 있었다"며 "인생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주는 삶의 충실한 동반자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신의 러브송은 무엇입니까?

BTS, 5집 '아리랑' 메시지 전달...세계 주요 도시서 질문 캠페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다음달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앞두고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당신의 러브송은 무엇입니까?'(WHAT IS YOUR LOVE SONG?)라고 묻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최근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서울 성수동,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이스트 빌리지·소호·루클린, 영국 런던 워털루역·브리저역 등에 이 같은 문구를 선보였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펼쳐진 이 같은 캠페인은 처음에는 그 주제가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키웠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지만, 그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에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장미로 채운 아트월이 설치됐는데, 시민들이 벽에 꽃힌 꽃을 모두 가져가자 장미 뒤에 가려져 있던 '당신의 러브송은 무엇입니까?'(WHAT IS YOUR LOVE SONG?)라는 문구와 방탄소년단의 로고가 나타났다.

빅히트뮤직은 "이번 홍보는 정규 5집 '아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글로벌 캠페인"이라며 "신보는 팀의 정체성과 깊은 사랑 같은 보편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표출된 방탄소년단(BTS) 신보 홍보 문구. /연합뉴스

적인 감정을 다룬다. 방탄소년단은 깊은 사랑의 감정에서 착안한 질문을 전 세계에 던졌다"고 소개했다.

각자가 간직한 러브송을 떠올리며 앨범의 정서를 자연스레 느껴보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오는 22일까지 서울, 뉴욕, 런던 곳곳에 부착된 포스터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전용 사이트에 자신의 러브송을 남길 수 있는 캠페인도 진행된다.

방탄소년단은 다음달 20일 오후 1시 5집 '아리랑'을 발표한 뒤, 다음 날인 21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북극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연다. 이 공연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AI 시대에도...읽다, 그리고 나아가다

대한독서문화예술협, 회원 직무연수 성료...특강·토론 등

(사)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이하 대독문)는 최근 광산구립 이야기꽃도서관 너른마루에서 회원 직무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슬로건은 '읽다, 잇다, 그리고 나아가다'.

이날 연수에는 대독문 심명자 이사장을 비롯해 그림책연구회 차승경 회장, 회원, 시나리오그림책연구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유실화 작가와 함께 만나는 그림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유 작가는 자신의 작품 '슈퍼 거북' 읽어주기 외에도 퀴즈타임, 책 만드는 과정 소개, '슈퍼 토끼' 스토리텔링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장갑 시리즈' 애니메이션(북 트레일러) 상영 및 비하인드 스토리도 소개하며 참석자들과 그림책에 대한 생각 등을 공유했다. 꾸며졌다.

마지막 순서로 '작가에게 질문하기' 시간도 진행됐다. '슈퍼 거북'을 동화로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유 작가는 "그림책 만드는 학교에 다니면서 숙제를 받았는데 옛날이야기 중 기억에 남아있던 계

'토끼와 거북이'였다"며 "결과적으로 느리든 빠르든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동화를 쓰게 됐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참석자들의 모듬 토론(퍼실리테이터 토론) 시간이 펼쳐졌다. 각각 3개의 주제를 모티브로 공유와 위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차승경 회장이 올해 협회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심명자 이사장은 "AI시대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지만 독서의 중요성, 스토리의 중요성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연수를 계기로 회원들이 함께 독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는 독서운동의 확대, 독서교육 전문가 양성, 지역사회와 도서관 활성화와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꾸려졌다. 어린이, 시니어, 실버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독서 콘텐츠를 개발해 다양한 강의를 이어오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unesco World Heritage site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www.getbolworldheritage.org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합계 (km²)	유산지역 (km²)	완충구역 (km²)
총면적(km²)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km²)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km²)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km²)의 약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딴해 갯벌 신라 섬에 둘러싸인 절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갯벌 위의 수채화 새들의 휴식처인 사위와 일반사식지 갯벌 위에 춤추는 무희, 사위 암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홍도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퇴적층 모래-자갈 선형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갯벌 속의 모래갯벌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쾨롱어 싸움, 열납게,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쾨롱어 싸움, 갯벌의 청소부 열납게, 염생식물의 역할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VR로 떠나는 생생한 갯벌 탐험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